전남도, 지역맞춤 복지 연계 '고독사 예방' 총력

1인 가구 35%·독거노인 25%
사각지대 발굴·정책 연구 등
3개분야 24개 과제 중점 추진

전남도가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남지역 총가구수는 77만7,358가구에 1인 가구는 27만4,108가구(35.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고독사와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노인, 청년 등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추진, 사업효과 향상이 기대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분야에선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4개 부서가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역량강화·정책연구 분야에선 ▲통합사례관리 직무역량 ▲전남 고독사 실태·예방방안 연구 ▲전남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연구자료는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2021년 4월 고독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5월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 빠르게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독자적으로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22개 시군이 참여해 선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다"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오전 도청 귀빈실에서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오른쪽 네 번째)으로부터 기부금을 기탁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개발공사, 33억 기탁·지역사회 공헌

매년 순이익 10% 상생 나눔
인재육성·위기가구 등 지원

전남개발공사는 30일 인재육성과 문화예술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익금 33억원을 전남도에 기부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발전 선도와 나눔 가치 실천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탁 분야를 기존 인재육성기금 2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 외에 복지기동대 지원금 3억원을 추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선 세계적 인재양성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남 청소년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비롯해 전남 특화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순수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 지사는 "건실한 경영을 통해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한 장충모 사장과 개발공사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개발공사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 및 개발이익 환원 마련에 전남도와 협력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 의료인프라 붕괴…의대 신설이 답"

도의회 의대 유치 대책위
윤 정부에 약속 이행 촉구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가 전남권 의대 설립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전남도민은 지난 3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요구해 왔다"며 "전남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최근 '의대신설 없는 의대증원'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전남의 참담한 의료 현실과 함께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전남도민의 간절한 호소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시설 없는 전국의 섬 중 60% 전남 소재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중공업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 밀집으로 중대산업재해 위험 무방비 노출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 응급의료 취약지역 ▲고령인구 비율 전국 최고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한해 83만명의 원정 진료와 원정진료 의료비 연간 1조6,000억원 유출 등을 적시했다.

대책위는 "전남의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지정병원은 최소한의 의료인력마저 부족해 문을 닫는 필수 진료과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해 공공의료 기반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여당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과 최소한의 의료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도민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김화진 "마늘 가격안정, 정부 선제 대책 필요"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30일 전남지역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올해 마늘 생산량이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해 수확기인 6월을 앞두고 소비 부진과 전년도 재고 누적,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마늘 수매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하는 한편 수입산 관리, 시장 격리, 마늘 소비 촉진 방안 등 실효적 종합대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